“美, 이란 제재 눈앞”… 정유·석화, 수입처 다변화 ‘고민’

지난달 이란산 초경질유 수입 ‘0’
카타르산 초경질유 수입은 급증
가격·수익성 맞춰 수입처 찾아야

지난달 국내 정유·석유화학 업계가 핵심 원료인 이란산 초경질유(콘덴세이트)를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성과 안정성을 이유로 이란산 초경질유를 가장 선호했던 국내 기업들이 또 다른 수입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한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업계가 수입한 이란산 초경질유 물량은 0%다.

지난 4월에는 수입 초경질유 중 무려 58.5%에 달하며 최대 비중을 차지했지만 5~8월에 30%대로 급락하더니 9월에는 ‘수입량 제로(0)’까지 이르렀다.

초경질유는 국내 기업들이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종이다. 여기서 나오는 나프타가 기초 원료가 되는데 같은 양의 일반 원유보다 더 많은 나프타를 추출할 수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공급 안정성과 가격 때문에 이란산을 선호했으나 이달말 미국의 대 이란 제재 복원을 앞두고 리스크가 커지자 미리 수입처 다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산 초경질유 수입이 떨어지는 동안 그나마 카타르산 초경질유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카타르산 초경질유 수입량 비중은 올해 1~4월 29.7~42.9% 수준에 머무르다 6~7월에는 절반 수준으로 올라왔고 이란산이 수입되지 않았던 지난 9월에는 80.4%까지 비중이 급증했다.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에서 180일의 기간동안 예외국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수입 물량의 제약이 있어 사실 다른 국가의 수입을 고심해야하는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은 이란과 카타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리비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초경질유를 수입한다.

하지만 월별 수입량이 1000배럴을 넘지 않아 이란, 카타르 초경질유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초경질유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유종이 아닌 데다 가격 측면에서도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초경질유에 공정을 가한 결과물인 나프타를 수입하려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국내로 들어오는 초경질유 수출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초경질유 수입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카카오는 스마트홈 플랫폼 ‘카카오홈’을 출시하고 IoT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

‘카카오홈’으로 IoT 출사표

AI 플랫폼 ‘카카오i’ 전용앱 출시
제휴기기 별도 절차없이 이용 가능

카카오는 스마트홈 플랫폼 ‘카카오홈’을 출시하고 IoT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8일 밝혔다.

카카오는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가 적용된 카카오홈의 전용앱을 출시하고, 카카오톡·카카오미니·카카오내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집안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카오홈과 제휴된 기기를 카카오홈앱에 등록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카카오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집 안에서 카카오미니를 통해 “헤이카카오, 안방 조명 켜줘”처럼 한마디로 쉽게 조명을 켤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공기청정기 켜줘”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장소에 상관없이 기기 조정이 가능하다. 자동차에서도 카카오내비를 통해 집안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건설사, 전자 기기 제조사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IoT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 이미 포스코 건설 함께 조명, 난방, 엘리베이터 등 각종 아파트 설비를 카카오홈과 연동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미니로 제어 가능한 단지를 선보였으며, 적용되는 아파트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GS건설, IoT 전문기업 코맥스 등과의 제휴를 통해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 전반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필립스 등 조명 기기와 코웨이 공기청정기 등 주요 생활 가전업체는 물론 가습기, 스마트플러그, 자동 블라인드 등을 생산하는 미로, 브런트, 다원DNS, 나란, 어웨어와 같은 스타트업들과도 제휴를 맺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삼성SDS, 청호나이스, 한샘, 아이오, 고퀄, 매를로랩, HK 네트웍스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도 서비스 연동을 준비 중에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포스코 “2차전지 음극재시장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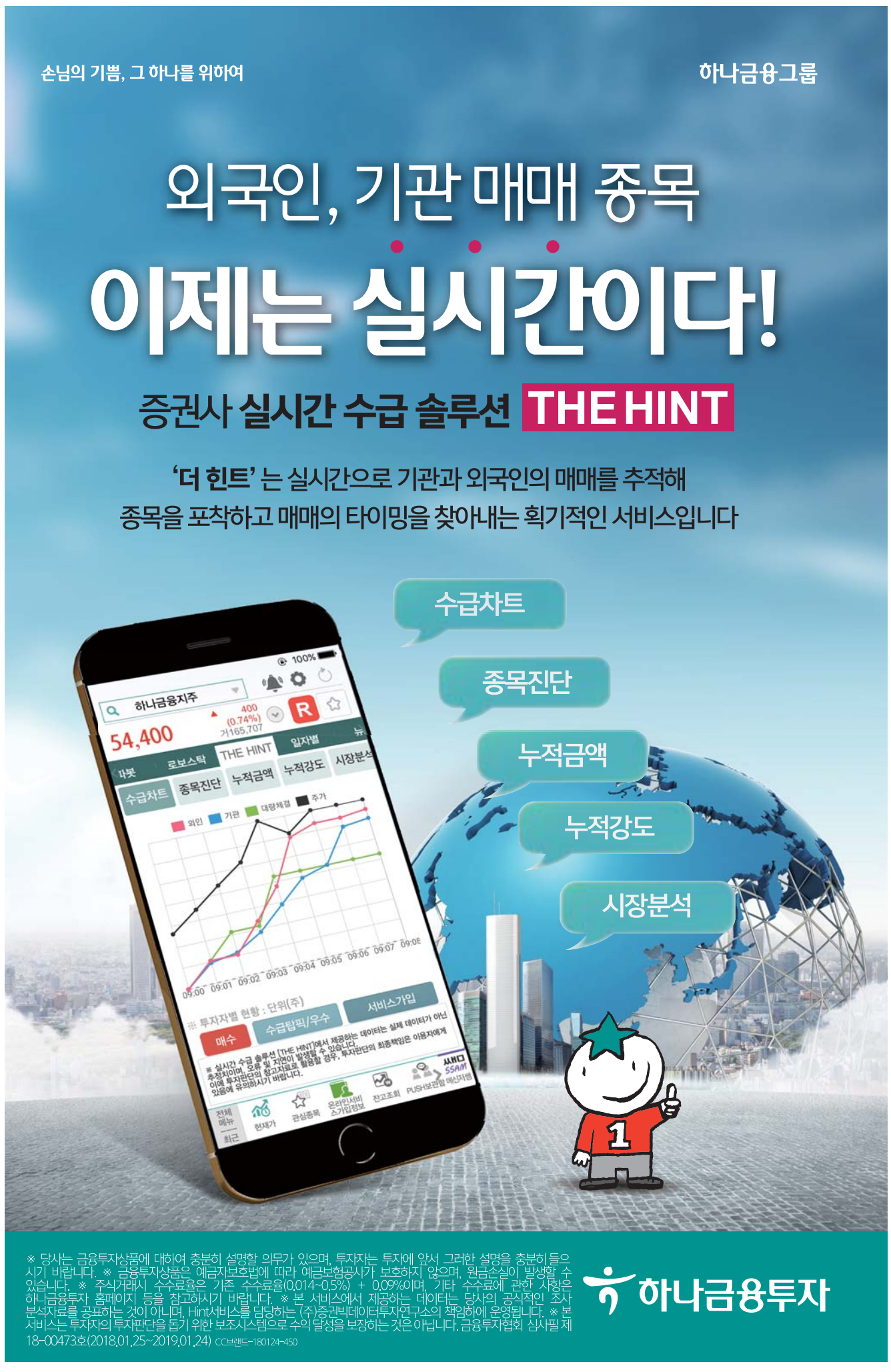
포스코켐텍 2공장서 생산라인 확대

포스코그룹이 포스코켐텍의 2차전지 음극재 생산능력 확대를 시작으로 2차전지 소재 시장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포스코켐텍은 8일 세종시에서 2차전지 음극재 1공장의 준공식과 함께 2공장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음극재 생산라인 확대에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켐텍이 2010년 음극재 사업을 시작해 국산화에 성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한 것은 고객과 지역사회의 응원과 도움 덕분에 가능했다”며 “향후에도 포스코의 신성장 엔진 중 하나인 에너지 소재 분야에 투자를 지속하고 고용확대와 기술리더십 확보를 통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포스코가 되겠다”고 밝혔다.

음극재는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과 더불어 2차전지의 4대 주요소재 하나로 2차전지 충전시 양극에서 나오는 리튬이온을 음극에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며 흑연 등의 탄소물질을 소재로 사용한다. 이날 종합 준공한 포스코켐텍의 1공장은 지난 2011년 1호기 준공 이후 꾸준한 국내외 고객사의 수요증대로 총 6차에 걸친 설비증설을 통해 연산 2만4000톤의 음극재를 생산하게 됐다.

포스코켐텍은 2019년 하반기까지 1단계인 4개의 생산라인을 완공해 연산 2만톤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2021년까지 총 10개의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증설해 연산 5만톤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